



15일 오전(한국시간) 뉴욕주 레이크플래시드 '1980 링크'에서 열린 피겨 시니어 그랑프리 5차 대회에서 김연아의 쇼트프로그램 연기가 끝나자 관중들이 일어서서 박수를치고 있다.

/연합뉴스

‘피겨 여신’에겐 한계가 없다

그랑프리 5차 대회...기술·연기 계속 진화

완벽한 점프 가산점 상승 불러

연도	대회명	점수	순위
09~10	2009-2010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 시니어 그랑프리 5차 대회	76.28	133.76점(합계) 1위
09~10	2009-2010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 시니어 그랑프리 1차 대회	75.08	133.95점(합계) 1위
09~10	10월 세계선수권 대회	76.12	131.99점(합계) 1위
09~10	09-10시즌 그랑프리 파이널	72.24	116.83점(합계) 1위
09~10	09-10시즌 그랑프리 4차 대회	65.94	120.41점(합계) 1위
09~10	09-10시즌 그랑프리 3차 대회	63.64	128.11점(합계) 1위
09~10	09-10시즌 그랑프리 2차 대회	69.50	123.95점(합계) 1위
09~10	09-10시즌 그랑프리 1차 대회	59.85	123.38점(합계) 1위
08~09	08-09시즌 그랑프리 파이널	64.62	132.21점(합계) 1위
08~09	08-09시즌 그랑프리 4차 대회	63.50	133.70점(합계) 1위
08~09	08-09시즌 그랑프리 3차 대회	58.32	122.36점(합계) 1위
08~09	08-09시즌 그랑프리 2차 대회	71.95	114.19점(합계) 1위



“더 이상 완벽할 수 없다”

‘피겨여신’ 김연아(19·고려대)가 2009-2010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 시니어 그랑프리 5차 대회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서 역대 최고점(76.28점)을 기록하면서 과연 ‘김연아의 한계는 어디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연아가 이번 쇼트프로그램에서 기록한 기술점수(TES)는 무려 44.00점이다. 지난달 그랑프리 1차 대회에서 최고점을 기록할 때 TES

가 43.80점이었던 김연아는 이번에 0.2점을 끌어올렸다.

이번 대회에서 김연아의 쇼트프로그램 8가지 연기 요소의 기본점은 34.40점이다. 지난 3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역대 최고점을 세웠을 때 기본점은 34.90점으로 오히려 이번 대회보다 높았다. 최고점을 경신했는데도 기본점이 낮았던 것은 마지막 스핀 콤비네이션에서 지난 대회(레벨 4)와 달리 레벨 3을 받아들였다. 김연아도 “마지막에 스피드가 살짝 떨어진 것 같았다”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김연아는 낮아진 레벨로 손해를 본 0.5점을 모두 가산점(GOE)로 채웠고, 오히려 시니어 무대 데뷔 이후 가장 높은 기술점수를 기록할 수 있었다.

가장 놀라운 부분은 이날 김연아의 가산점이다. 김연아의 가산점 총점은 9.60점으로 지난 2006-2007 시즌 처음 시니어 무대에 데뷔한 이후 역대 최고다.

무엇보다 완벽한 점프가 가산점 상승을 불러왔다. 김연아는 첫 점프인 트리플 러츠-트리플 투루프 콤비네이션 점프에서 무려 2.2점의 가산점을 받았다. 그동안 최고 2점까지 받았던 김연아는 점프의 완성도가 절정을 이르며 0.2점을 더 받아냈다.

지난 1차 대회에서 심판으로 참가했던 이지

희 빙상경기연맹 부회장도 “김연아가 트리플 러츠-트리플 투루프 콤비네이션 점프에 성공하면 사실상 ‘게임 오버’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라고 칭찬했을 정도다.

더불어 이번 시즌 단독 점프로 바꾼 트리플 플립(기본점 5.5점)에서도 1.80점을 따냈다. 김연아가 단독 점프로 1.80점의 가산점을 챙긴 것은 지난 2007년 그랑프리 파이널 쇼트프로그램에서 트리플 러츠를 단독으로 뛰어서 1.80점을 받은 이후 거의 2년 만이다.

하지만 김연아는 이번에도 여운을 남겼다.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쇼트프로그램 역대 최고점을 세울 때 3개의 스핀 요소가 모두 레벨 4였지만 이번에는 두 개만 레벨 4였다.

결국 스텝의 레벨을 4로 올리고 스핀마저 모두 레벨 4를 기록한다면 김연아는 또 한 번 쇼트프로그램의 최고점을 경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남겨졌다.

/연합뉴스

美 레이크플래시드 빙상장

기립박수·환호... 연아만의 무대

어 마지막 선수인 김연아의 순서가 되자 또 한 번 링크는 환호성으로 뒤덮였지만, 김연아가 오른손을 높이 치켜들고 무릎을 살짝 굽힌 채 연기 준비를 마치자 이내 경기장 안에는 침묵이 흘렀다.

‘07 시리즈 주제가’가 느릿하게 흐르고 김연아가 트리플 러츠-트리플 투루프 콤비네이션을 시작으로 트리플 플립까지 완벽하게 끝내자 관중석의 열기도 함께 뜨거워졌다.

연기가 중반을 넘어 스텝 연기에서 절정을 이루자 교민 응원단을 비롯한 모든 관중이 손뼉을 치며 박자를 맞추고, 마지막 스핀 콤비네이션으로 연기를 끝내자 곧바로 기립 박수가 터져 나왔다.

김연아 역시 흥분하는 동안 트리플 플립 점프의 타이밍에 문제가 생겨 두 차례나 엉덩방아를 찧었던 터라 내심 긴장했지만 완벽하게 연기를 끝내자 스스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 두 손을 꼭 쥐고 가슴에 모은 채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 장면을 지켜본 팬들 역시 감동의 도가니에 빠져들었다. 곳곳에서 인형이 날아들면서 화동 5명이 모두 나서 선물을 거둬갈 정도로 김연아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고, 김연아가 인사를 마치고 키스앤드라이존에 있을 때까지 박수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이윽고 전광판에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 역대 최고점(76.28점)이라는 자막이 뜨자 팬들은 우렁찬 박수를 또 한 번 보냈다.

/연합뉴스

“내 점수 보고 나도 깜짝 놀랐어요”

■ 김연아 인터뷰

“경기가 끝나고 나서도 역대 최고점인 줄 몰랐어요. 점수보고 깜짝 놀랐어요”

김연아(19·고려대)가 2009-2010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 시니어 그랑프리 5차 대회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서 역대 최고점인 76.28점으로 선두에 오르고 나서 “음악이 끝나고 나서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점수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점수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라며 신기록 달성의 기쁨을 전했다.

김연아는 15일(한국시간) 오전 미국 뉴욕주 레이크플래시드 '1980 링크'에서 치러진 대회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서 자신이 지난 3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세웠던 역대 최고점(76.12점)을 0.16점 높은 76.28점의 새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다.

김연아는 경기를 끝내고 나서 신기록을 세운 것에 대해 “이번 대회에서는 점수에 대한 부담

을 느끼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라며 “매번 실수 없는 연기를 하려고 노력하지만 오히려 더 못할 때도 있다. 스스로 점수에 대한 압박을 느끼고 싶지 않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1차 대회 때 성적이 아주 좋아서 시작 전에 긴장이 많이 됐다”라며 “음악이 시작하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 마지막 스핀이 살짝 느렸다고 느꼈는데 점수를 보고 너무 놀랐다”라고 덧붙였다.

첫 번째 연기과제인 트리플 러츠-트리플 투루프 콤비네이션 점프(기본점 10점)에서 역대 최고인 2.2점의 가산점을 얻은 것에 대해선 “솔직히 프로그램에 열중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점프를 뛰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며 “속수에 가서 빨리 가산점을 확인해 봐야겠다. 전반적으로 연습 때처럼 편안하게 하려고 노력했다”라고 웃음을 지었다.

김연아는 또 “경기 시작 전에 잘할 수 있을지 긴장이 많이 됐다”라며 “선수 경험이 풍부한 브라이언 오서 코치가 그런 면을 잘 다스려 주신다. 경기 직전 서로 많은 얘기를 나누지 않지만 눈빛으로 ‘준비 다 됐어요’라는 의견을 나눈다. 내가 잘할 것이라 믿는다”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연아, 오서코치와 함께 동계올림픽 성화봉송

김연아(19·고려대)가 자신의 스승인 브라이언 오서 코치(캐나다·사진오른쪽)와 함께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성화봉송주자에 뽑혔다.

김연아의 매니지먼트사인 IB스포츠는 15일 “김연아가 전지훈련지인 캐나다 토론토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해밀턴에서 도심 구간을 약 300m 정도 달릴 것”이라며 “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삼성전자의 추천으로 성화봉송에 참여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에 이어 2회 연속 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주자로 발탁된 김연아는 한국 최초의 올림픽 피겨 금메달리스트로 탄생한 밴쿠버에서 성화봉송에 나서게 된 게 눈길을 끈다.

김연아는 “2006년 토리노 동계올림픽 당시에는 나이가 어려서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화봉송을 했었다”라며 “이번에는 동계올림픽 출전을 3개월 앞둔 상태에서 성화봉송 주자로 참여하게 된 게 무척 뜻깊고 기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연아의 코치인 오서는 김연아보다 이틀 앞선 17일에 성화를 나를 예정이다.

/연합뉴스